

일자리

I. 일자리 정책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2014.02.10.)

-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2014년 4대 정책목표'를 보고함.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년차 남은 과제로는 ① 청년 취업 애로 지속(2013년 청년 고용률 39.7%), ② 국제 비교시 아직 낮은 여성 고용률(한국 53.9%, OECD상위 13개국 69.4%), ③ 줄지 않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2012년 중위 임금의 2/3 미만인 근로자 비율 25.3%), ④ 경제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으로 꼽을 수 있음.
 - 이를 중심으로 올해 개선해야할 4대 정책목표 및 11대 전략을 보고함.
- 정책목표 1.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 직업교육·훈련 혁신: 독일·스위스에 버금가는 직업훈련 시스템 마련을 위해 부처합동 「직업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
 - 능력중심 채용·인사관리 확산: 학위·학벌 없이도 훈련, 직업경력,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용·보수·승진 등에서 동등하게 대우 받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국가역량체계(NQF)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
 -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여건 조성: 2014년 11개 산업단지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을 집중 지원
 - 청년 일자리 영역 확대: 기존 해외취업의 문제점을 개편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유망 전략산업의 고용창출도 지원할 예정
- 정책목표 2. 여성, 맘껏 능력 발휘하기
 -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아빠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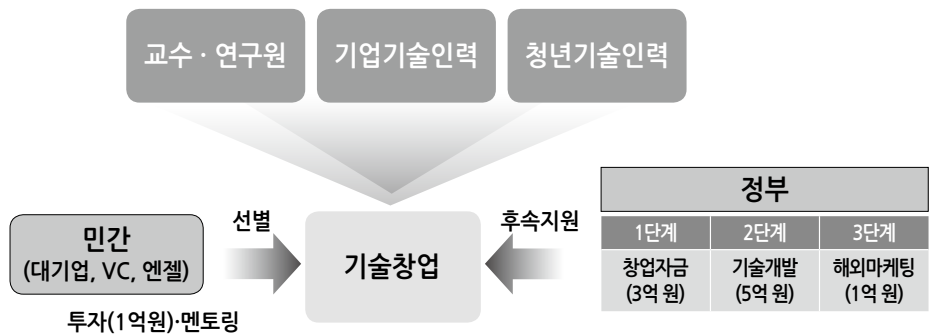
- 육아기에 일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여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편
 - 육아기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중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을 추진
 -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을 위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 30대 고학력 여성의 고숙련 훈련을 지원하고, 관광·문화 등 여성 취업이 용이한 전략직종을 발굴하여 훈련하는 등 양질의 훈련을 확대할 계획
- 정책목표 3. 저소득층, 일을 통한 복지 확충
- 고용·복지 융합서비스의 신속한 확산: 고용센터에서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전국 70개소를 목표로 고용·복지 종합센터 확대를 추진
 - 올해 5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선정하여 각각의 특성별로 신규 고용보험을 적용하거나 보호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강화: 후진국형 기초고용질서 위반 관행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각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정책목표 4. 새로운 미래를 여는 '新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 노사정 대화를 통한 新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노사정 대화를 통해 ① 노동시장 제도 개혁, ②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③ 불합리한 관행 혁신을 통한 新 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
 - 중앙단위에서 노사정이 합리적 대안을 중심으로 열린 대화를 통해 新 고용노동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시작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업종별 대화 채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지역·업

중 단위에서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중소기업청, 업무보고 자료(2014.02.24.)**

-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촉진을 위해 민·관 공동 패키지(10억 원) 지원
 - 민간의 선별 역량과 정부의 후속 지원을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퍼스트 펙귄」형 기술창업을 육성
 - 연구원, 기업 기술인력 등의 기술창업을 매년 150개 육성

그림 1. 창업 촉진을 위한 민·관 공동패키지



- 미래를 꿈꾸는 청년 드림 CEO 1만 명 양성
 -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고교·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업 CEO' 1만 명 양성(2017년)
 - 우수 대학 졸업자를 선발하여 벤처기업 등에 창업 인턴(1+1년)으로 재직한 후, 창업 시 자금 지원(~2017년 300명)
-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편
 - 2013년 추진한 중소기업 범위 개편(매출액 단일기준 도입 등)을 마무리하고, 매출액 기준 도입 등 소기업 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임.
 -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 우수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여건 마련
 - 출연(연) 연구인력이 스톡옵션으로 중소기업과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형 연구원 파견제’ 도입(9월)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 기술부사관의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기술특전사 제도’ 운영(2월)

□ 미래창조과학부, UST-출연(연) 손잡고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2014.02.07.)

- 출연(연) 현장에서 첨단분야의 국내 최고 연구진들로부터 석·박사 과정을 지도받고 학위 취득 후 약정한 기업에 취업이 보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학과가 본격 운영
 - UST는 기업맞춤형 계약학과 운영을 위해 4개 출연(연) 및 5개 기업과 총 10명을 선발하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2014학년도 전기에 채용조건형 3명(석사과정), 재교육형 1명(박사과정)을 우선 선발
- 선발된 학생들의 경우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며 재학중 연수장려금과 별도로 장학금도 지원받음.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지원으로 UST와 출연(연)이 약 70%, 기업체가 30% 내외를 부담
 - 이번에 선발된 신입생들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측정과학), 한국생명공학연구원(기능유전체학),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학기술정책) 등에서 연구와 학업을 병행하며 석·박사과정을 이수
- UST 계약학과는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출연(연)에서 현장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특수분야 소수정예 인원을 선발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기업 맞춤형의 계약학과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출연(연)의 우수한 기술을 산업체에 확산하여 창조경제 활성화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기획재정부, 2014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향(2014.02.09.)

- 「2014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여, 고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능력중심의 채용제도 개선, 방만경영 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공공기관 인력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제시
 - 여성고용 확대, 시간선택제 기반구축, 고졸자 채용확대 및 내실화, 청년인턴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 여성고용 확대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확대에 초점
 - 기관이 경력단절여성 채용목표비율을 자체적으로 설정토록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
 - 공공기관 퇴사 여성인력에 대한 통합 인재뱅크를 구축하여 공동활용하며, 민간사례를 참고한 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의 대체인력은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
 - 여성의 관리자 승진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통해 2017년까지 부서장급 이상의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를 기관실정에 맞게 설정
- 시간선택제의 선도적인 확산을 위해 노사발전 재단 등을 통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이 적합한 직무의 발굴을 유도
 -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고졸에 적합한 직무 발굴을 유도하고, 채용후 조직내에서 대졸자에 비해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직경로, 승진제도, 보수, 교육훈련, 후진학 등의 제도를 정비
- 인턴제도는 신규인력 채용방식을 인턴과정을 통해 채용하는 채용형인턴(최소

70%이상 정규직 채용)제도로 전환하되 2014년에는 12개 기관에 시범도입하고, 원칙적으로 서류전형 없이 능력중심의 스펙초월방식으로 채용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대를 맞아 유연근무제 확산이 중요하므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공단 등의 모범사례를 전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자(팀) 모집 (2014.02.14.)**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 지난 2011년 첫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3년간 약 1,000여개 창업팀이 배출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된 창업자(팀)에게는 창업을 위해 필요한 창업 공간, 자금, 멘토링 등이 지원될 예정
 - 창업자금: 최소 2,000만 원~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
 - 멘토링: 사회적기업 창업과 경영전반에 걸친 창업자(팀)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멘토링 지원

□ **고용노동부, 「장년 취업 인턴제」 시행(2014.02.14.)**

- 만 50세 이상 장년이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년 취업 인턴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8천명 규모로 시행
- 베이비부머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작된 「장년 취업 인턴제」는 장년을 새로 채용하는 중소기업 등에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
 - 인턴기간(최대 4개월)동안 약정임금의 50%(월 한도 80만 원)를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후에는 6개월 간 월 65만 원을 추가로 지원

- 2014년부터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약정임금의 60%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함(전일제는 약정임금의 50%).
- 장년 취업 인턴제에는 만 50세 이상(1964.12.31이전 출생자) 미취업자의 참여 가능하고,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참여 가능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가능 연령 확대 시행(2014.01.07.)**

- 2014년 1월 14일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 가능 연령이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
 -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
-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 가능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

□ **고용노동부, 「2014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공모(2014.01.17.)**

- 「2014년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근로자 권익보호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
- 이 사업은 근로조건 개선, 고용 안정, 합리적인 노동조합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 조사·연구, 상담·법률구조, 컨설팅 및 홍보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
 - 금년에는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임금체계개편** 등 노동단체가 주도하는 고용유지·창출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

-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 직무 재설계, 작업방식 개편, 교대제 개편, 인력 배치 전환 등
- ** 공정한 임금체계 모델 개발, 정년연장과 병행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

○ 지원대상 기관은 총연합단체 및 지역단위 본부, 산업별 연합 단체,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조, 2개 이상 중소노조 연합 (각 조합원 300인 미만)임.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사회보험료 지원(2014.01.22)**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를 2년간 지원
 - 이 사업은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3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고,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 사업주이며 대기업에는 지원되지 않음.
 -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이 경과된 날(신청요건 충족일)부터 할 수 있고, 3개월 단위로 근로자 별로 각각 신청하거나 일괄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고용률 70% 로드맵」 홈페이지 오픈(2014.01.29.)**

- 「고용률70% 로드맵 홈페이지」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의 개념부터 관련 정보(교육·홍보 자료, 외국사례, 달라진 법·제도, 우수사례 등), 정책추진 상황, 고용률 지표 변화 등을 제공
 - 장시간 근로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과 해결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코너를 개설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각 부처별·정책과제별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 및 계획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고용 통계와 각종 연구 자료도 제공함.

□ **기획재정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발표**
(2014.02.04.)

- 정부는 2.4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
-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특징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거나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짐.
 - 40대 이후 고용률이 다시 증가하나 이는 생계형 하향 재취업의 결과로 남성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증가
- 그 동안 정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도입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왔음.
 -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워 육아휴직 등을 편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 아이돌봄·초등돌봄교실 등 돌봄서비스,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유연근로 환경 등도 아직 부족한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 6차 산업화 지원정책 매뉴얼 발간**(2014.02.05.)

-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 산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6차 산업화 지원정책 매뉴얼」을 발간·배포
- 이번 매뉴얼은 농산물 생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에게 6차 산업 참여를 확대한다는 데 의의

- 이번 매뉴얼은 각 기관별·분야별로 6차 산업화 지원정책을 정리하여 6차 산업을 추진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17개 기관과 9개 지자체의 6차 산업화 관련 219개 지원정책을 금융, 컨설팅, 교육, 수출, R&D, 인증, 시설지원, 마케팅, 체험관광, 지역개발 등 10개 분야로 분류하여 정리

□ **고용노동부,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합동설명회 개최(2014.02.14.)**

-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고용·인적자원개발 및 노사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부가 지원하는 사업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사민정이 참여하여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 고용 유지·창출 및 경제 활성화 등을 협의하는 협의체
- 올해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화를 지원하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
 - 향후 실적평가 등을 통해 정부포상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
 - 이번 설명회는 우수사례 및 컨설팅 사례 발표, 질의응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정보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

□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 시행(2014.02.17.)**

-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은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불일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
 -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대학 3·4(5)학년, 전

- 문대학2(3)학년들에게 최소 1학기부터 최대 6학기까지 등록금을 지원
- 취업 준비를 위한 취업준비장려금(학기당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학생 1명에게 연간 1천만 원 수준을 지원하는 사업
- 장학금 수혜 대학생은 등록금 지원 및 취업이 확정되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현장실습 및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한 맞춤형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졸업 후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장기근무자 확보가 가능
- 직무기초교육은 OJT(On-the-job Training, 직장 내 훈련), 직무역량강화 활동(관련분야 자격증 취득 등) 등임.

□ 고용노동부, 「2014년 생애주기별 일하는 여성 지원정책 안내서」 배포(2014.02.18.)

- 고용노동부는 각 부처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여성지원제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4년 생애주기별 일하는 여성 지원정책 안내서」를 발간
- 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임신·출산기, 영유아기, 전 연령대 등 생애주기별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음.
-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도 수록

표 1. 생애주기별 여성지원 정책

구분	근로자	사업주
임신·출산기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 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비정규직 재고용)

〈표 계속〉

구분	근로자	사업주
영유아기	육아휴직(급여)제도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 부여)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무상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융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전 연령대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 고용촉진지원금 여성고용 환경개선 융자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 창업보육실 운영)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4.02.18.).

□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2014.02.21.)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만 50세 이상의 퇴직인력(대·중소기업 퇴직자, 퇴직 교수, 퇴직 교사 등)이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사업 참여자에게는 1일 최대 2만 4천원의 참여수당과 식비 등이 제공
- 2013년 참여자 특징: 평균 29.3년의 경력, 초대졸 이상이 74.9%, 퇴직 후 사회공헌활동 전까지 실직기간이 평균 42.2개월(9.1%는 8년 이상)임.
- 2013년도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들은 높은 학력과 전문 경력을 보유한 퇴직전문인력으로 퇴직 후 오랫동안 뚜렷한 사회활동을 하지 않다가 과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함.
-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함.
 - 경영마케팅, 인사노무, IT정보화, 교육연구 등 13개 분야에서 활동
 -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보유자도 3년

이상 경력자로 인정

□ **고용노동부, 청년·여성이 찾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2014.02.21.)**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의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사업
 - 작년에는 456개 사업에 521억 원을 지원하여 160개 자치단체에서 9,8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짐.
- 금년에는 168개 자치단체에서 총 535개의 일자리창출 사업과 880억 원을 신청하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역수요 및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한 155개 자치단체 총 401개 사업, 572억 원을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여성연구자 경력복귀 지원 확대(2014.02.25.)**

-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은 일자리 복귀를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과기인들을 연구인력이 필요한 출연(연), 대학, 기업 등과 서로 매칭하여 일자리를 찾게 도와줌으로써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과기인들이 연구현장으로 원활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는 58명의 경력단절 여성 과기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올해는 그보다 두 배 더 늘어난 100명 규모가 될 예정
- 임신·출산·육아·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현재 미취업 중인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여성과기인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기관의 경우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으로 정부지원금(2천만 원)의 20% 이상 자금과 채용 기초 지원(퇴직금 및 4대보험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올해 사업기간은 2014년 5월~2015년 2월까지(10개월)로, 사업결과 평가를 통해 최장 3단계(3년 이내)까지 지원되며, 풀타임 근무 뿐 아니라 시간선택

제 일자리 등의 유연한 근무형태도 활용 가능

- 올해는 경력단절 여성과기인의 연구현장 복귀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복귀 준비부터 일자리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형태의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
 - 복귀준비 단계에서는 예비복귀자의 등록을 받아 재취업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준비 교육과 직업상담, 일자리 추천 등을 지원
 - 사업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며 경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취업중개 및 알선, 구인기관과 구직자의 교류기회 제공, 경력관리상담 등 사후관리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

II. 일자리 통계

□ 2014년 1월 고용률은 58.5%, 실업률은 3.5%로 고용률과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 1.1%p, 0.1%p 증가

- 2014년 1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0.6%로 전년 동월 대비 1.1%p만큼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2,56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만 9천 명 증가
- 2014년 1월 고용률은 58.5%로 전년 동월 대비 1.1%p 증가함.
 - 취업자는 2,475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만 5천 명 증가
- 실업률은 3.5%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증가
 - 실업자는 89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4천 명 증가

표 2. 주요 고용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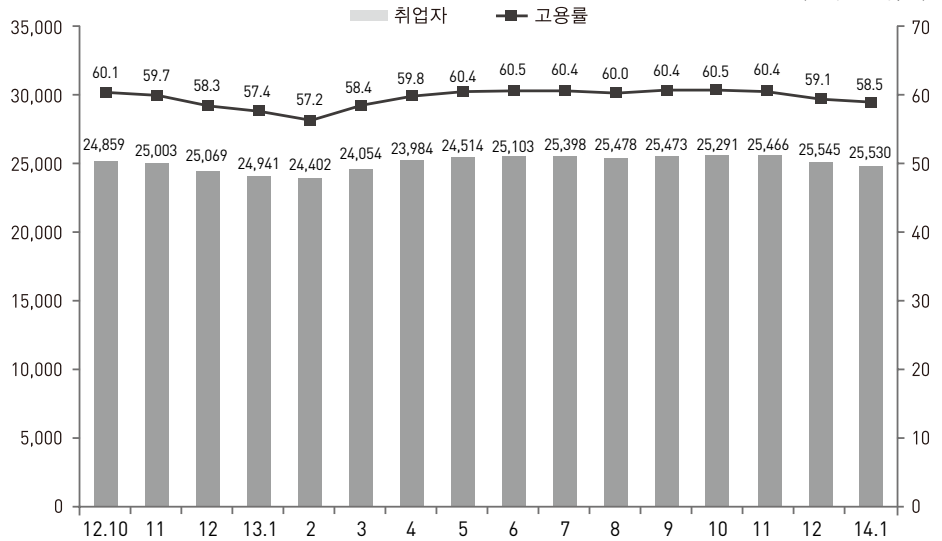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3.1		2013.12		2014.1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15세 이상 인구	41,877	1.3	42,272	1.0	423,074	427	1
경제활동인구	24,901	1.3	25,736	2.4	25,650	749	3.0
참가율	59.5		60.9		60.6	1.1p	
·취업자	24,054	1.4	24,962	2.3	24,759	705	2.9
고용률	57.4		59.1		58.5	1.1p	
·실업자	847	-0.7	774	5.0	891	44	5.2
실업률	3.4		3.0		3.5	0.1p	
비경제활동인구	16,975	1.4	16,537	-1.0	16,654	-322	-1.9

자료: 통계청(2014. 2.), 『2014년 1월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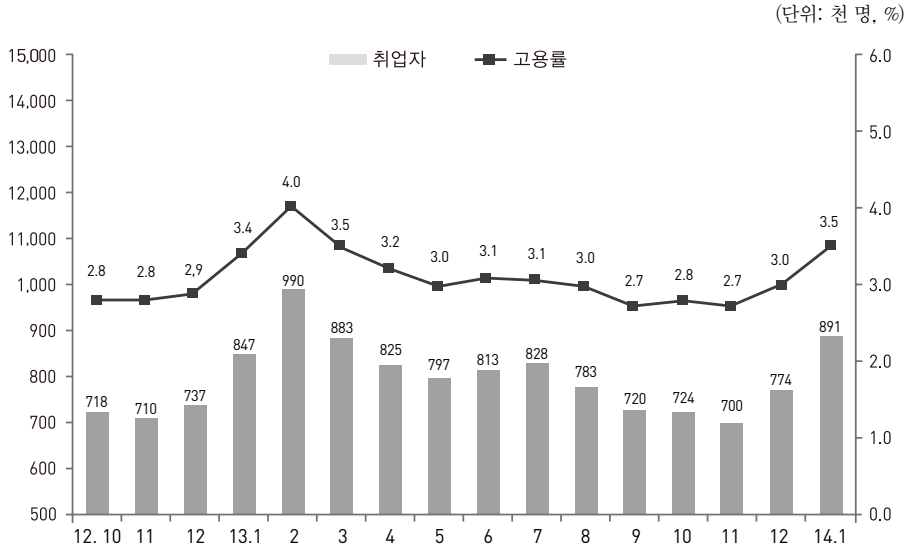
그림 2. 취업자와 고용률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2014. 2.), 『2014년 1월 고용동향』.

그림 3.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2014. 2.), 『2014년 1월 고용동향』.

□ 남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 증가

- 성별 고용률은 남자는 70.2%, 여자는 47.4%로 전년 동월 대비 남자와 여자 모두 1.1%p 상승
 - 취업자는 남자의 경우 1,451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 명이 증가하였고, 여자는 1,024만 1천 명으로 32만 5천 명 증가
- 연령별 고용률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여 청년층(15~29세)은 0.8%p 증가하였고, 30대와 40대, 50대, 60세 이상은 각각 1.2%p, 1.3%p, 2.1%p, 1.1%p 증가
 - 취업자는 청년층(15~29세) 7만 3천 명, 30대 1만 1천 명, 40대 9만 명, 50대 32만, 60세 이상 20만 9천 명 증가

표 3.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3.1		2013.12		2014.1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전체	24,054	57.4	24,962	59.1	24,759	58.5	705	1.1	
성별	남자	14,138	69.1	14,586	70.6	14,518	70.2	380	1.1
	여자	9,916	46.3	10,376	48.0	10,241	47.4	325	1.1
연령	15~29세	3,818	40.0	24,962	261.6	3,891	40.8	73	0.8
	·15~19세	288	8.8	242	7.5	282	8.7	-6	0.0
	·20~24세	1,240	43.0	1,299	43.2	1,340	44.5	100	1.6
	·25~29세	2,290	68.0	2,267	68.6	2,269	68.8	-21	0.7
	30~39세	5,680	72.0	5,743	73.8	5,691	73.2	11	1.2
	40~49세	6,547	77.2	6,668	78.9	6,637	78.5	90	1.3
	50~59세	5,301	70.2	5,677	73.2	5,621	72.3	320	2.1
	60세 이상	2,709	32.2	3,066	35.1	2,918	33.3	209	1.1
학력	중졸 이하	4,280	34.5	4,295	35.9	4,138	34.6	-142	0.1
	고졸	9,675	60.5	9,926	61.5	9,928	61.4	253	0.8
	전문대졸	3,311	74.1	3,389	76.1	3,367	75.7	56	1.7
	대졸 이상	6,787	75.4	7,352	75.8	7,325	75.4	538	0.0

자료: 통계청(2014. 2.), 『2014년 1월 고용동향』.

□ **임시근로자는 감소한 반면, 그 밖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증가**

- 임금근로자는 1,825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비임금근로자는 650만 3천 명으로 0.5% 증가
 -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각 5.8%, 3.3%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0.7% 감소
 -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천 명(0.1%), 무급가족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2천 명(2.2%) 증가

표 4.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취업시간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3.1		2013.12		2014.1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24,054	100.0	24,962	100.0	24,759	100.0	705	2.9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7,581	73.1	18,414	73.8	18,256	73.7	675	3.8
	·상용근로자	11,292	46.9	11,938	47.8	11,951	48.3	659	5.8
	·임시근로자	4,791	19.9	4,871	19.5	4,757	19.2	-34	-0.7
	·일용근로자	1,498	6.2	1,605	6.4	1,548	6.3	50	3.3
	비임금근로자	6,473	26.9	6,548	26.2	6,503	26.3	30	0.5
	·자영업자	5,452	22.7	5,474	21.9	5,460	22.1	8	0.1
	·무급가족종사자	1,021	4.2	1,074	4.3	1,043	4.2	22	2.2
취업 시간대별	36시간 미만	3,371	14.0	3,514	14.1	3,568	14.4	197	5.8
	36시간 이상	20,035	83.3	21,112	84.6	20,517	82.9	482	2.4
	일시휴직	648	2.7	336	1.3	619	2.5	-29	-4.5

자료: 통계청(2014. 2.), 『2014년 1월 고용동향』.

□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증가

- 청년층 취업자 수는 389만 1천 명, 고용률 40.8%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7만 4천 명, 고용률은 0.8%p 증가
- 연령별 고용률 증가의 효과는 20~24세가 1.6%p 증가로 가장 높은 반면, 25~29세 0.7%p 증가, 15~19세는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없음.
 - 연령별 취업자 수는 20~24세가 전년 동월 대비 10만 명 증가한 반면, 15~19세는 6천 명, 25~29세는 2만 1천 명 감소
-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취업자 수와 고용률 증가, 남자의 경우 취업자 수는 6만 9천 명, 고용률은 1.3%p 증가하였고, 여자의 경우 취업자 수는 4천 명, 고용률은 0.4%p 증가
- 학력별로 중졸 이하는 취업자 수가 1만 4천 명이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0.3%p 감소하였음. 고졸자의 경우 취업자 수는 5만 4천 명, 고용률은 0.3%p 증가함.

- 전문대졸의 경우 취업자 수는 9만 9천 명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2.9%p 증가함.

- 대졸 이상은 취업자 수가 13만 4천 명, 고용률은 1.7%p 증가함.

표 5. 청년층(15~29세)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3.1		2013.12		2014.1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전체	3,817	40.0	3,808	39.9	3,891	40.8	74	0.8	
연령별	15~19세	288	8.8	242	7.5	282	8.7	-6	0.0
	20~24세	1,240	43.0	1,299	43.2	1,340	44.5	100	1.6
	25~29세	2,290	68.0	2,267	68.6	2,269	68.8	-21	0.7
성별	남자	1,829	38.6	1,822	38.3	1,898	39.9	69	1.3
	여자	1,989	41.4	1,986	41.6	1,993	41.7	4	0.4
학력	중졸 이하	185	6.6	143	5.3	171	6.3	-14	-0.3
	고졸	1,569	39.9	1,549	38.5	1,623	40.1	54	0.3
	전문대졸	1,016	77.2	940	79.4	917	80.1	-99	2.9
	대졸 이상	1,046	70.8	1,176	71.9	1,180	72.4	134	1.7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명(0.8%)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도 4만 3천 명(18.1%) 증가

-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각 3만 6천 명(3.0%), 6천 명(1.7%) 감소하였고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각 7만 2천 명(3.5%), 2만 4천 명(14.7%), 1만 9천 명(25.3%) 증가함.

표 6.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취업시간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3.1		2013.12		2014.1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3,817	100.0	3,808	100.0	3,891	100.0	74	1.9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3,579	93.8	3,543	93.0	3,609	92.8	30	0.8
	·상용근로자	2,041	53.5	2,122	55.7	2,113	54.3	72	3.5
	·임시근로자	1,188	31.1	1,117	29.3	1,152	29.6	-36	-3.0
	·일용근로자	350	9.2	304	8.0	344	8.8	-6	-1.7
	·비임금근로자	238	6.2	265	7.0	281	7.2	43	18.1
	·자영업자	163	4.3	182	4.8	187	4.8	24	14.7
	·무급가족종사자	75	2.0	83	2.2	94	2.4	19	25.3
취업 시간대별	36시간 미만	588	15.4	592	15.5	624	16.0	36	6.1
	36시간 이상	3,151	82.6	3,170	83.2	3,184	81.8	33	1.0
	일시휴직	79	2.1	46	1.2	77	2.0	-2	-2.5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고령층(55~79세)은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증가

- 고령층 취업자는 52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만 7천 명, 고용률 2.1%p 증가
- 고용률의 경우 성별로는 남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각 2.3%p, 1.8%p,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5.3%p로 가장 크게 증가

표 7. 고령층(55~79세)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3.1		2013.12		2014.1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전체	4,833	44.9	5,429	48.6	5,270	47.0	437	2.1	
성별	남자	2,938	58.4	3,273	62.6	3,188	60.7	250	2.3
	여자	1,895	33.1	2,156	36.3	2,083	34.9	188	1.8
학력	중졸 이하	2,684	40.3	2,881	43.7	2,746	41.7	62	1.4
	고졸	1,521	52.0	1,757	55.0	1,738	53.9	217	1.9
	전문대졸	109	57.4	152	63.1	151	62.7	42	5.3
	대졸 이상	520	53.4	638	55.8	635	54.6	115	1.2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고령층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9%p 증가, 비임금근로자는 7.0%p 증가
 -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각 18.4%p, 3.9%p, 6.8%p 증가함.
 -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각 7.3%p, 5.2%p 증가

표 8. 고령층(55~79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취업시간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3.1		2013.12		2014.1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4,832	100.0	5,429	100.0	5,270	100.0	438	9.1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589	53.6	2,992	55.1	2,870	54.5	281	10.9
	·상용근로자	1,153	23.9	1,347	24.8	1,365	25.9	212	18.4
	·임시근로자	983	20.3	1,099	20.2	1,021	19.4	38	3.9
	·일용근로자	453	9.4	546	10.1	484	9.2	31	6.8
	비임금근로자	2,243	46.4	2,437	44.9	2,400	45.5	157	7.0
	·자영업자	1,918	39.7	2,080	38.3	2,058	39.1	140	7.3
	·무급가족종사자	325	6.7	357	6.6	342	6.5	17	5.2

〈표 계속〉

구분		2013.1		2013.12		2014.1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취업 시간대별	36시간 미만	1,218	25.2	1,394	25.7	1,334	25.3	116	9.5
	36시간 이상	3,499	72.4	3,961	73.0	3,804	72.2	305	8.7
	일시휴직	116	2.4	74	1.4	116	2.2	0	0.0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남자 실업률 감소, 여자 실업률 증가

- 성별 실업자 중 남자는 53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 명 감소하였고, 여자는 36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1천 명 증가
 - 실업률은 남자 3.5%, 여자는 3.4%로 전년 동월 대비 남자 실업률 0.1%p 하락하였고, 여자는 0.3%p 상승

- 연령별 실업자 규모는 30대와 5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모두 증가
 - 실업률 또한 청년층(15~29세)이 전년 동월 대비 1.2%p 증가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학력별 실업자 규모는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에서 전년 동월 대비 각 2만 7천 명, 7천 명 감소한 반면, 중졸 이하 1만 6천 명, 고졸에서 6만 2천 명 증가함.
 - 실업률은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에서 전년 동월 대비 각 0.8%p, 0.3%p 감소한 반면, 중졸 이하, 고졸 모두에서 0.5%p 증가

표 9. 실업자와 실업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3.1		2013.12		2014.1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증감		증감률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전체	847	3.4	774	3.0	891	3.5	44	0.1	5.2	
성별	남자	528	3.6	467	3.1	531	3.5	3	-0.1	0.6
	여자	320	3.1	306	2.9	361	3.4	41	0.3	12.8
연령	15~29세	311	7.5	381	9.2	373	8.7	62	1.2	19.9
	·15~19세	33	10.3	44	15.4	56	16.6	23	6.3	69.7
	·20~24세	122	9.0	132	9.2	148	9.9	26	1.0	21.3
	·25~29세	156	6.4	179	7.3	169	6.9	13	0.6	8.3
	30~39세	193	3.3	158	2.7	150	2.6	-43	-0.7	-22.3
	40~49세	131	2.0	119	1.8	133	2.0	2	0.0	1.5
	50~59세	119	2.2	87	1.5	113	2.0	-6	-0.2	-5.0
	60세 이상	93	3.3	54	1.7	122	4.0	29	0.7	31.2
학력	중졸 이하	148	3.3	104	2.4	164	3.8	16	0.5	10.8
	고졸	369	3.7	366	3.6	431	4.2	62	0.5	16.8
	전문대졸	127	3.7	110	3.1	100	2.9	-27	-0.8	-21.3
	대졸 이상	204	2.9	194	2.6	197	2.6	-7	-0.3	-3.4

자료: 통계청(2014. 2.), 『2014년 1월 고용동향』.

□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37만 2천 명, 실업률 8.7%(전년 동월 대비 1.2%p 증가)

○ 남자 실업률은 10.2%로 전년 동월 대비 1.7%p 증가, 여자는 7.3%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증가

○ 학력별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중졸 이하 0.7%p, 고졸 3.7%p 증가하였고, 전문대졸 0.9%p, 대졸 이상 1.0%p 감소

표 10. 청년층(15~29세) 실업자와 실업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3.1		2014.12		2014.1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증감		증감률	
							실업자	실업률		
전체	311	7.5	355	8.5	372	8.7	61	1.2	19.6	
성별	남자	171	8.6	203	10.0	216	10.2	45	1.7	26.3
	여자	141	6.6	152	7.1	156	7.3	15	0.6	10.6
학력	중졸 이하	21	10.1	19	11.8	21	10.9	0	0.7	0.0
	고졸	149	8.7	197	11.3	230	12.4	81	3.7	54.4
	전문대졸	62	5.7	51	5.1	47	4.9	-15	-0.9	-24.2
	대졸 이상	78	6.9	88	7.0	74	5.9	-4	-1.0	-5.1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고령층(55~79세) 실업자는 17만 1천 명,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증가

○ 남자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 대비 0.1%p 감소, 여자는 3.2%로 0.6%p 증가

표 11. 고령층(55~79세) 실업자와 실업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3.1		2013.12		2014.1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증감		증감률	
							실업자	실업률		
전체	147	3.0	88	1.6	171	3.1	24	0.2	16.3	
성별	남자	97	3.2	61	1.8	103	3.1	6	-0.1	6.2
	여자	50	2.6	27	1.2	68	3.2	18	0.6	36.0
학력	중졸 이하	87	3.1	52	1.8	101	3.5	14	0.4	16.1
	고졸	43	2.7	25	1.4	48	2.7	5	0.0	11.6
	전문대졸	0	0.0	3	1.9	5	3.2	5	3.2	0.0
	대졸 이상	17	3.2	9	1.4	17	2.6	0	-0.6	0.0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비경제활동인구는 1,665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 1천 명 감소**

- 활동상태별로는 연로(7만 3천 명), 취업준비(2만 4천 명), 정규교육기관통학(1만 8천 명) 등에서 증가
- 반면 육아(1만 7천 명), 가사(20만 6천 명), 입시학원 통학(2만 9천 명),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6만 2천 명), 진학준비(1만 4천 명), 쉬었음(15만 4천 명) 등에서 감소

표 12.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3.1		2013.12		2014.1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16,975	100.0	16,536	100.0	16,654	100.0	-321	-1.9
육아	1,512	8.9	1,466	8.9	1,495	9.0	-17	-1.1
가사	6,401	37.7	6,133	37.1	6,195	37.2	-206	-3.2
정규교육기관 통학	4,008	23.6	4,136	25.0	4,026	24.2	18	0.4
입시학원 통학	52	0.3	36	0.2	23	0.1	-29	-55.8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통학	208	1.2	140	0.8	146	0.9	-62	-29.8
취업준비	363	2.1	382	2.3	387	2.3	24	6.6
진학준비	178	1.0	151	0.9	164	1.0	-14	-7.9
연로	1,900	11.2	1,930	11.7	1,973	11.8	73	3.8
쉬었음	1,831	10.8	1,609	9.7	1,677	10.1	-154	-8.4
기타	522	3.1	553	3.3	567	3.4	45	8.6

주: 기타는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등을 포함.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526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 4천 명(2.7%) 감소**

- 취업준비(1만 6천 명), 기타(2만 1천 명)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정규교육기관 통학(1천 명), 입시학원 통학(2만 9천 명), 육아(4만 2천 명), 가사(2만 1천

명),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5만 2천 명), 진학준비(1만 4천 명), 쉬었음(2만 2천 명) 등에서 감소

표 13. 청년층(15~29세)의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3.1		2013.12		2014.1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5,411	100.0	5,377	100.0	5,267	100.0	-144	-2.7
육아	242	4.5	202	3.8	200	3.8	-42	-17.4
가사	112	2.1	88	1.6	91	1.7	-21	-18.8
정규교육기관 통학	3,978	73.5	4,093	76.1	3,977	75.5	-1	0.0
입시학원 통학	52	1.0	36	0.7	23	0.4	-29	-55.8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통학	158	2.9	100	1.9	106	2.0	-52	-32.9
취업준비	263	4.9	272	5.1	279	5.3	16	6.1
진학준비	173	3.2	147	2.7	159	3.0	-14	-8.1
쉬었음	325	6.0	307	5.7	303	5.8	-22	-6.8
기타	108	2.0	132	2.5	129	2.4	21	19.4

주: 기타는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등을 포함.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성별, 학력별로 세분하여 활동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고졸 이하의 경우 남자는 37.8%, 여자는 48.9%가 정규 교육기관 통학
 - 대졸 이상의 경우, 남자는 취업준비(10.6%)가 여자는 육아(5.1%)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4.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학력별 활동상태(2014.1.)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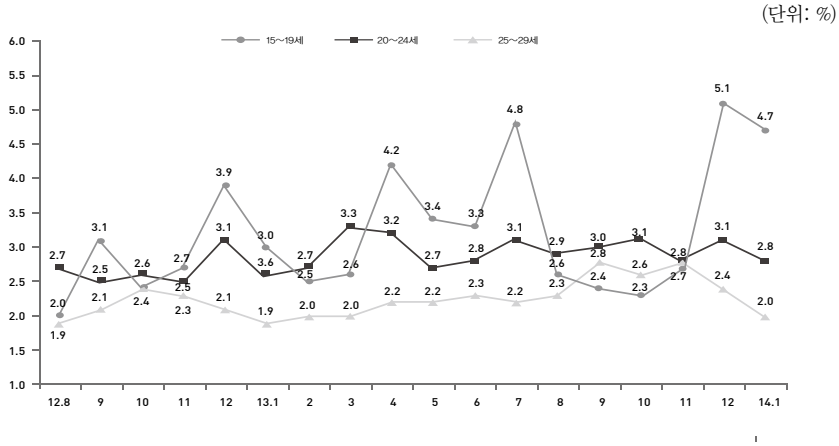
구분	남자				여자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전체	2,284	100.0	631	100.0	1,760	100.0	934	100.0
육아	0	0.0	0	0.0	89	5.1	48	5.1
가사	2	0.1	0	0.0	31	1.8	33	3.5
정규 교육기관 통학	864	37.8	32	5.1	860	48.9	23	2.5
입시학원 통학	12	0.5	0	0.0	10	0.6	0	0.0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17	0.7	19	3.0	34	1.9	18	1.9
취업준비	73	3.2	67	10.6	37	2.1	85	9.1
진학준비	85	3.7	5	0.8	41	2.3	12	1.3
쉬었음	162	7.1	22	3.5	41	2.3	25	2.7
기타	1,069	46.8	485	76.9	616	35.0	691	74.0

주: 기타는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등을 포함.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20대 후반 모두에서 증가

○ 전체 실업률 대비 비율은 2014년 1월 현재 10대 후반(15~19세)은 4.7%로 전년 동월 대비 1.7%p 상승, 20대 초반(20~24세)은 2.8%로 2013년 1월의 2.6%보다 0.2%p, 20대 후반(25~29세)은 2.0%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함.

그림 4.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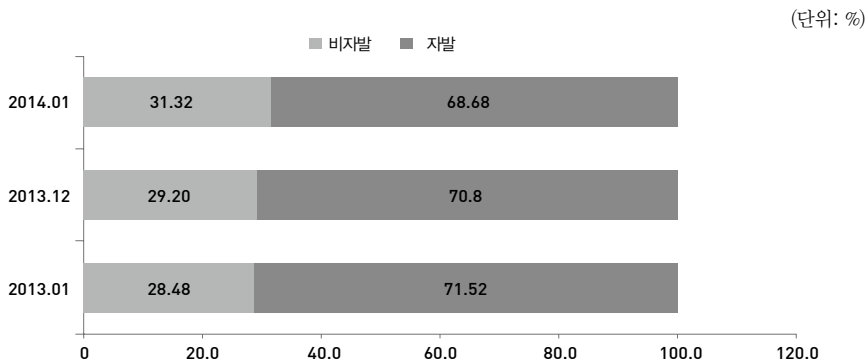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15~29세)의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는 증가

- 청년층 단시간 근로자들 중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단시간 근로하는 비율은 31.32%로 전년 동월 대비 2.84%p 증가하였고, 자발적 사유로 단시간 근로하는 비율은 68.68%로 전년 동월 대비 2.84%p 감소

그림 5. 단시간 근로의 이유



주: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하여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외는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 증가**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취업자는 9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2천 명 증가
 -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56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8천 명이 증가하였고, 여자는 39만 3천 명으로 4만 6천 명 감소
 - 재학 중인 학력별로는 전문대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취업자는 21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7천 명 감소,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취업자는 58만 1천 명으로 3만 5천 명 증가

- 고용률은 17.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증가
 -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19.3%로 전년동월 대비 1.8%p 증가, 여자의 경우 15.9%로 전년 동월 대비 1.9%p 감소
 - 재학 중인 학력별로는 전문대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고용률은 34.5%로 전년 동월 대비 2.1%p 감소하였고,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고용률 역시 27.7%로 0.5%p 감소

표 15.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3.1		2013.12		2014.1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전체	948	17.7	836	15.7	960	17.8	12	0.1	
성별	남자	509	17.5	479	16.4	567	19.3	58	1.8
	여자	439	17.9	357	14.7	393	15.9	-46	-1.9
학력	전문대	245	36.7	195	30.9	218	34.5	-27	-2.1
	대학교	546	28.2	516	25.1	581	27.7	35	-0.5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재학 중 취업 청년층 중 주요 활동상태가 '일하였음'인 인구는 43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1천 명이 증가하여 7.6%p 증가

- 재학 중 취업 청년층 인구는 6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 명 감소
 - '정규 교육기관 통학'을 하고 있는 재학 중 취업 청년층은 23만 명으로 전체의 34.3%를 구성하고 전년 동월 대비 12.2%p 감소

표 16. 재학 중 취업 청년층(15~29세)의 주요 활동상태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3.1		2013.12		2014.1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673	100.0	554	100.0	670	100.0	-3	-0.4
일하였음	407	60.5	282	50.9	438	65.4	31	7.6
일시휴직	4	0.6	5	0.9	2	0.3	-2	-50.0
정규 교육기관 통학	262	38.9	267	48.2	230	34.3	-32	-12.2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NEET족 인원 수와 비율 모두 증가

- 청년 NEET족 규모는 84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천 명 감소
 - 성별로는 남자는 4천 명 증가하였고, 여자는 2만 명 감소
 - 연령별로는 10대(15세~19세)가 전년 동월 대비 2천 명 증가, 20대 초반(20~24세)의 경우는 8천 명, 20대 후반(25세~29세)은 1만 명 감소
 - 학력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중졸 이하가 7천 명, 대졸 이상이 3만 3천 명 증가하였으며 고졸 4만 명, 전문대졸이 1만 4천 명 감소
- 전체 청년층 대비 NEET족 비율은 8.8%로 전년 동월 대비 0.2%p 감소
 - 성별로는 남자가 10.7%(0.6%p)로 전년 동월 대비 변화없으며, 여성은 7.0%로 전년 동월 대비 0.4%p 감소
 - 연령별로는 20대 초반(20~24세)과 20대 후반(25~29세)의 경우 각 0.8%p, 0.1%p로 감소한 반면, 10대 후반(15~19세)은 0.1%p 증가

-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0.3%p, 대졸 이상이 0.8%p 증가하였고, 고졸은 전년 동월 대비 1.4%p NEET족 비율 감소

표 17. 청년층(15~29세) NEET족 규모와 비율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3.1		2013.12		2014.1				
	인원수	NEET족 비율	인원수	NEET족 비율	인원수	NEET족 비율	증감		
							인원수	NEET족 비율	
전체	859	9.0	822	8.6	843	8.8	-16	-0.2	
성별	남자	506	10.7	501	10.5	510	10.7	4	0.0
	여자	353	7.3	321	6.7	333	7.0	-20	-0.4
연령별	15~19세	118	3.6	110	3.4	120	3.7	2	0.1
	20~24세	395	13.7	389	12.9	387	12.9	-8	-0.8
	25~29세	346	10.3	323	9.8	336	10.2	-10	-0.1
학력	중졸 이하	38	1.4	42	1.6	45	1.7	7	0.3
	고졸	525	13.3	472	11.7	485	12.0	-40	-1.4
	전문대졸	107	8.1	96	8.1	93	8.1	-14	0.0
	대졸 이상	188	12.7	213	13.0	221	13.6	33	0.8

주: NEET족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미혼 '가사'+'발령대기'+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기타'인원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RISES

(작성: 김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with you

행복한 일자리, 역량있는 직업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동행합니다